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⑦ 인천 서구 법명사 참나무

무정설법이 가득한 도심 속 도량

인천 서구 원적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있는 법명사는 1989년 부루나포교원이란 이름으로 시작된다. 선일 스님이 미국행에 앞서 후원 사찰의 의미로 작은 상가에 둥지를 틀었는데, 바람과 달리 신도들이 모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다. 목탁 세 개가 부수어질 정도로 정진, 또 정진하니 어느 순간 신도 가득한 지금의 법명사로 거듭났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부루나존자에게 '너는 전법제일존자면서 앞으로 법명여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의 이 말에서 부루나포교원이 법명사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불교 불모지에 가깝다는 인천에서, 포교 원력 초기 절 하나 없었다던 서구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늘의 법명사를 일구어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비와 인욕으로 불교의 불모지였던 수로나 지방에서 전법을 실행한 부루나존자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평구와 서구를 오가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에 법명사로 들어가라는 안내판이 보이고, 바람막이인 듯 소음막이인 듯 길게 늘어선 향나무 앞 십이지신상을 지나니 명상박물관이 나온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명상박물관은 선일 스님이 신도들과 명상을 하면서, 명상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나누면서, 모든 명상을 한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설립된 건축물로 2층 나한전에서는 명상 등 여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 인터넷에서 특이하게 다가왔던, 이곳을 찾은 동기이기도 한, 큰법당 주위에 있는 꽃밭 속 주인공들을 만나려고 기웃거리는데, 조화를 빼고는 모든 꽃들이 죽은 듯 겨울을 끝내지 않고 있다. 시들다 못해 곧 부서질 것 같은 줄기들이 안쓰러운 듯 툭툭 불거진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어르신의 굽은 등에 오래 눈길을 줄 수 없어 산과 평지의 경계에 선다. 딱 거기가 큰법당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산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아래에 수북하게 더미진 잎들을 주워보고, 군데군데 겨울을 통과한 도토리들을



나무 중의 나무 참나무가 함께하는 법명사.

보면서 내린 결론은 참나무 6형제 가운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가 주로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띄지 않은 나머지 3형제는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이다.

참나무는 한 종(種)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나무과에 속하는 전 세계 600여 종의 나무를 통칭하는 단어다. 우리나라에는 남부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류를 포함해 15종이 있는데, 이들 나무들이 도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도토리나무라는 이름이 친숙하다.

참나무 한자는 진목(眞木)이다. 참 진(眞)을 쓰고 있으니 참나무가 된다. 참나무영어는 Oak다. 나무 영어는 tree다. 그런데 tree는 고대인도 유럽어의 'deru, daru'에서 변화된 것으로, 이 단어는 firm(단단한), solid(견고한), steadfast(변함없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tree와 'deru, daru' 사이에 Oak라는 중간 과정이 있단다. tree에서 나아가 만들어지는 단어가 true(진실)인데, 산짐승 위험에 늘 놓여 있던 시절 안전하게 도망갈 곳은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서양의 Oak도 참 혹은 진실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동서양이 공통으로 '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참나무 학명에서 속명은 Quercus이다. 이 단어는 켈트어로 quer(질 좋은)와 cuez(목재)의 합성어란다. 말 그대로 목재로서의 가치가 아주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주요 건축부재로 쓰였는데, 벌채가 너무 심해 고려에서는 느티나무로, 조선에서는 소나무로 대체되면서 참나무가 많이 잊혀져 갔다.

식물 학명은 라틴어가 대부분이지만 켈트어 비중도 상당한데, 켈트족은 최초의 인간이 나무였다고 믿는 종족이었다고 한다. 이 켈트족에는 드루이드라는 사제계급이 있는데, 그 뜻은 '참나무에 대해서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아가 참나무에 달린 겨우살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당시 겨우살이가 약으로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숲은 참나무류가 소나무류보다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소나무가 늘 최고의 나무로 인식되는 건 최근 역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슬러 가면 우리 조상은 켈트족과 마찬가지로 참나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큰법당 옆에 자그맣게 자리잡고 있는 산신각 안 단군 초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군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잎들이 상수리나무 잎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참나무에서 곧 새순이 돋으면서 수꽃과 암꽃이 보일 듯 말 듯 피어난다. 선일 스님은 무정설법(無情說法)이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나무 중의 진짜 나무, 참나무가 함께하는 사찰에 늘 참뜻이 가득하리라.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⑦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깨달음의 정처, 선운사

선운사에서 /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쳐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왜 그럴까. 전국의 산사(山寺) 가운데 시인묵객들이 소재로 가장 많이 끌어다 쓴 절이 전북 고창 도솔산에 있는 '선운사(禪雲寺)'다. 까닭이 뭘까, 곰곰 생각해본다. 대번에 떠오르는 시 한 편.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禪雲寺 洞口)'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읍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디다."

-서정주의「선운사 동구(禪雲寺 洞口)」

으으-, 아아-, 으아아-, 이 맛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까. 이 육질(肉質)을, 이 애절(哀絶)을, 이 육자배기와 향토와 가락과 연애를 어떻게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이 절묘한 장인(匠人)의 솜씨 앞에 필자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미당의 이 시로 인해 선운사는 문학의 천국이 되고 창작의 샘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샘물은 아직도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리고 쓺고 애달프고 질퍽하게, 때로는 핏빛 사랑으로, 때로는 붉은 연애로, 때로는 구수한 막걸리로, 목이 쉬게 시인묵객들의 마음을 육자배기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김용택 시인은 그 샘물 앞에서 끝내 이렇게 울었다.

"여자에게 버림받고/ 살얼음 낀 선운사 도랑물을 맨발로 건너며/ 발이 아리는 시린 물에 이 악물고/ 그까짓 사랑 때문에/ 그까짓 여자 때문에/ 다시는 울지 말자/ 다시는 울지 말자/ 눈물을 감추다가/ 동백꽃 붉게 터지는/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울었다" - 김용택의 '선운사 동백꽃'

희한하다. 김용택 시인은 어째서 선운사를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로 끌고 와 엉엉 울었을까. 안도현 시인도 기막히게 선운사를 끌어 들였다.

"나 오래 참았다/ 저리 비켜라/ 말 시키지 마라// 선운사 뒷간에/ 똥 떨어지는 소리"

-안도현의 '동백꽃 지는 날'

서정춘 시인과 박남준 시인은 한 술 더 떴다.

"동백숲이 정처(定處)다// 아껴서 듣고 싶은 철새가 운다// 울다가 그만 둔다// 귓속이 환해진다// 동백숲 그늘을 치고 동백이 진다// 할! 맞아 떨어진 점화(點火)를 본다"

-서정춘의 '선운사 점묘'

"선운사 동백꽃 보러 갔습니다/ 대웅전 뒷산 동백꽃 당당 멀었다 여겼는데요/ 도솔암 너머 마애불 앞 남으로 내린 한 동백 가지/ 선홍빛 수줍은 연지곤지 새색시로 피었습니다/ 흰 눈밭에 울컥 각혈을 하듯 가슴도 철렁 떨어졌습니다 그려"

- 박남준의 '선운사 동백꽃'

김영남 시인은 아예 내놓고 들이댔다.

"만약 어느 여자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숲속 길이 있다면/ 난 그녀와 살림을, 다시 차리겠네// 개울이 오묘한 그녀에게/ 소리가 나는 자갈길을 깔아주고/ 군데군데 돌무덤을 예쁘게 쌓겠네./ 아침이면 노란 새소리로 풀꽃을 깨우고/ (중략)/ 모두 떠나버린 겨울에는 그녀를 더 쓸쓸하게 하겠지?/ 그러나 난 그녀를 끝까지 지키는 장사송(長沙松)으로 눈을 얹고/ 진흥굴 앞에서 한겨울을 품위 있게 나겠네.// 설혹 그녀에게 가파른 절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저렇게 귀여운 암자를/ 옥동자처럼 낳고 살 것이네."

- 김영남의 '선운사 도솔암 가는 길'

가수 송창식의 노래도 '선운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님아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 가사

이만하면 선운사가 왜, 시인묵객들의 문학적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지 알 듯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필자는, 아직도, 그 연유를, '선암사 동구'에서 찾고 있다. 아무리 노래를 잘 해도 미당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는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뜨겁고, 매우 관능적이면서도 그 속에 불교의 자비희사(慈悲喜捨)와 도솔(兜率)·관음(觀音)사상을 담고 있다. 선운사를 소재로 한 많은 시편 속에 '여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끝내 깨달음으로 회귀하고 있는 '여자(중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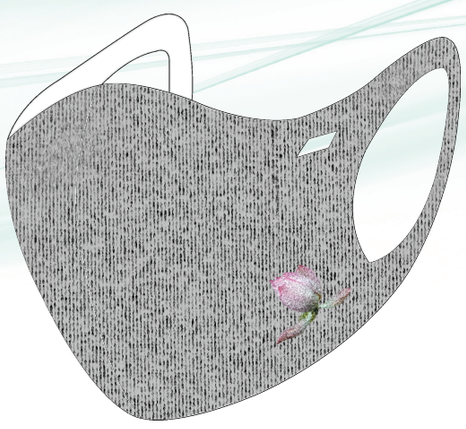
〈불교문학연구소장〉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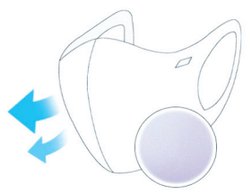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